

‘공존과 상생’으로 통일하자

조계종 남북교류 기조 발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불교계만이라도 ‘공존과 상생’의 원칙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정부는 5·24대북제재 조치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조계종이 불교계의 남북교류 원칙으로 ‘공존과 상생’을 제시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MB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앞선 발표로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남북 불교계의 위상 변화가 기대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장경판각 1천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 봉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 설명이야.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이번 남북을 통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대북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교구본사 단위의 활동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담 스님은 “민간차원의 교류 활동은 남북 정부 간 문제와 상관 없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종교 단체를 비롯한 문화교류는 대규모 행사 등 인적교류가 보장돼야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후반기 MB정부 대북기조 선도할지 주목

교구본사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규모에 관심

‘폐주기’ 안되려면 북측의 변화 예의 주시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남북문제는 공존과 상생의 문제이다. 불교계는 앞으로 공존과 상생으로 대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고 지거나 자존심 문제로는 더이상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층 각 분야에서도 ‘공존과 상생’ 원칙을 깊이 이해·실천하는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의 남북교류는 남북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를 대비한 인적·재정적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010년 1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 당시 평양 등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조계종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종단 차원의 대북지원 물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북단에 해인사(선각 스님)·마곡사(원혜 스님)·대흥사(범각 스님)·쌍계사(성조 스님)·신흥사(우승 스님)·범주사(호연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와 조계사(도진 스님)·도선사(해자 스님)·보문사(덕문 스님) 등 도신 또는 직영사찰주지를 포함시킨 것도 북측 상황을 종단구

조계종은 남북 교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마다 진행돼 온 부처님오신날과 8·15 남북공동법회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남북불교계가 함께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와 묘향산 보현사 등에 대한 성지순례 및 불교문화재 공동 복원 등 문화교류 행사를 남북한 당국이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의 지원이 ‘폐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측의 노력만큼이나 북측의 태도도 중요하다.

영담 스님은 “북측은 북측대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침향염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의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나눔 송편은 더 맛있어요.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 ‘한가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 어르신들과 신한생명 직원들이 함께 빛 송편을 홀몸어르신 31가구에 전달했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고려대장경은 평화와 희망의 상징

남북 불교계, 묘향산서 대장경판각 1천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천안한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 이후 막혔던 남북 물꼬를 불교계가 뚫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원장 영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일면 스님 등 37명은 9월 3-5일 대북제재 조치 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대북제재 조치 후 첫 방북

불교계가 남북교류 물꼬 터

민족문화수호 한마음 다짐

조계종 방북단(단장 영담)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위원장 심상진)과 5일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의 화해 협력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묘향산 보현사는 1937년 해인사 대장경판 인경본 전질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민족에게 고려대장경은 단순한 불경(佛經)을 새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요, 합

심과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장경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합동법회가 민족 화해와 단합,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며 팔만대장경을 더 잘 보존하고 빛내는 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통일불사(統一佛事)’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남북의 200여 사부대중은 해자 스님(도선사 주지)이 대표로 봉독한 고불문에서 “2010년 1월 남북 조계종대표단 방북 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한 우리 민족 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해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 보수·유지관리 협력 >팔만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한 민족 화해·평화를 위한 협력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등 3개 항을 실천 과제로 다짐했다.

이에 앞선 4일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해인사본 <금강경> 목판본 1

질(9판)과 <반야심경>(10판), 풍경(風磬)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 가운데 <금강경>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이다.

방북단장 영담 스님은 “통일부승인이 방북 전일야에 이뤄져 어려움이 많았다. 잘못돼서 (북한에) 못가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북측에 알려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9일부터 5일간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조계종 제187회 임시중앙총회가 9월 19일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중앙총회에서는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사찰법, 회계위원회, 법규위원회법 등 중헌종법 개정안과 초·재심 회계위원, 법규위원 선출의 건 등이 다뤄진다. 또, 정부의 새도령명주소 시행과 관련된 중앙총회의 결의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죽음이 괴로운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별거 있습니까?
-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제853호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음력 8월 17일 · 불기 2555년 · 주간)

“화합은 자기 수양에서 나온다”

고우 스님, 제2기 원로 의원 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9월 5일 개최한 제2회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첫 법사로 나서 불자들이 사회 화합, 화쟁을 위해서는 치열한 성찰을 통해 자기 수양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현재 지구상 갈등 중 가장 극심한 것이 종교갈등”이

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인들의 치열한 자기 점검을 통한 수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니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관련법문 11면**



노덕현 기자

로터스월드 성관 스님 포교대상

제9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캄보디아 등에서 국제구호활동을 벌여온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제9회 대원상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가부문에서는 불교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준 계간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이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9월 7일 이같이 밝혔다. 승가부문 특별상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재가부문 특별상은 불교계 최초의 사회적

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상근)가 선정됐다. 불교계 최초 미소금융 거제지점의 운영 대표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콘텐트부문 특별상에는 임우성 감독이, 강혜윤 씨와 문자영 씨는 장려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4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진행된 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독실한 개신교 문화재청장 내정

신임 문화재청장에 김찬 문화재청 차장(53)이 내정됐다. 김찬 문화재청장 내정자는 19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재무부를 거쳐 2003년 문화공보부 공보관에 이어 관광국장, 문화산업진흥담당,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관광산업국장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문화재청 차장을 맡아 왔다. 김 청장 내정자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결정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
2011. 9. 21(수)~11. 2(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동구청 옆)
주최 (사)광주불교사무원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불광출판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불교출판사, 불교출판사, 불교출판사
후원 서울 불광사, 광주불교승보회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처 광주전남불교신문도회 385-1336, 광주전남교신도회 375-0107, 자비산행회 234-0090 동점금 30000원

853호 CONTENTS

한국 강화선 미국간다	2
안철수와 박원순의 ‘단일화’	3
현장속으로	5
청암사 스마트캠퍼스	
안철수·박정철의 ‘청춘콘서트’	20·21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연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불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